

CHOSUN
UNIVERSITY
1946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교환/방문학생/한학기어학연수)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영국	파견 학교명	울버햄튼대학교
파견 시기	[2025]학년도 [2]학기	파견 기간	6개월 / 1년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Economics	기본 경제학	
	War and The Modern World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럽 역사	
	Terrorism	테러리즘의 이론 및 세계 테러의 양상	

체험수기

I .파견대학

영국 울버햄튼 대학교

1. 파견 대학 소개

영국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버밍엄’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인 울버햄튼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이자, 울버햄튼 도시의 핵심이 되는 대학교, 대학교 캠퍼스 안에 울버햄튼 축구 팀의 경기장이 위치해 있음

2. 파견 전 절차

본교 내에서의 설명회 1회, 그 이후 울버햄튼 파견 담당 한국 담당자분이 단독방으로 공지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은 영국 도착 1주일 후에, 개인별로 울버햄튼 대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진행, 기숙사는 한국에서 미리 신청하고 영국 도착하자마자 기숙사에서 생활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II .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syllabus 등 수강 관련 내용 정리하여 첨부제출)

Economics -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각각 5주씩 학습,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학습하고, 1번의 paper 시험으로 성적 산출

	War and The Modern World -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현대의 사이버 전쟁까지 대부분 유럽 전쟁사에 관한 내용, 에세이 2개가 각각 30%, 70% 비중으로 성적 산출 Terrorism - 테러리즘이라는 용어 정리부터, 종교적 테러, 정치적 테러와 같은 다양한 양상의 테러리즘에 관한 내용, 발표 40%, 에세이 60% 비중으로 성적 산출 Economics를 제외한 나머지 2 모듈에서는 매주 읽기 리스트가 있었으며, 읽기 리스트는 교수님이 매주 직접 올려주심, 책 또는 논문이었음. 기본적으로 양은 30페이지 정도, 미리 이 읽기 리스트들을 안 읽어가면 그 주 수업에 참여하기 힘들 정도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주 약 10시간 정도는 예습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음. 읽기 리스트가 있는 모듈이 있고 없는 모듈이 있으며, 읽기 리스트를 안 읽어 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극히 소수였으며, 영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매주 예습을 꼼꼼히 하는 편이었음. 에세이는 물론이고 발표를 할 때조차 교수님들이 학자들과의 토론을 매우 중요시 여기셨으며, 학자들과의 토론을 잘 하면 질할수록 점수를 높게 주셨음. 출처는 매우 기본적인거라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 지켜져 있으며 감점이 쉽게 되는 편이었으며, 얼마나 공신력 있는 논문이나 책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점수를 추가적으로 주시기도 하셨음. 에세이의 구조 또한 매우 중요시 여기셨으며, Introduction, Body, Conclusion이 명확하게 보이는걸 좋아하셨음. 또한, 단순히 4-5 가지의 논문이나 책을 가지고 에세이를 쓰는 것은 출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셨으며, 적어도 10개 이상은 활용하여 에세이를 작성했어야 함. 얼마나 다양하게 다양한 학자의 의견을 습득하고 그 의견들 속에서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었음. 모든 나의 의견에는 출처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나 책을 찾아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음. 1개의 에세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약 2주일이 필요했으며, 한 주는 매일 날을 새야지만 마감기간 안에 작성 가능한 정도였음. 에세이와 발표 모두 주제를 컴퍼 받기 위한 교수님들과의 1 대 1 미팅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 미팅을 잘 활용해야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음. 미팅은 필수인 모듈도 있었고 선택인 모듈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미팅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하지만 에세이 또한 읽기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를 아예 안 쓰는 모듈도 있었으며, 단순한 보고서로 성적을 산출하는 모듈도 있었음. (중간과제때 에세이를 내면 교수님의 상세한 피드백 내용을 담은 파일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기말과제때 점수를 보충할 수 있었음) Economics에서는 한 번의 paper exam으로 한 학기의 성적을 산출하게 되었는데, 객관식이 60%, 짧은 답변이 20%, 긴 답변이 40% 비중이었고, 짧은 답변과 긴 답변은 하나도 빠짐없이 무조건 작성해야 했었음. 긴 답변은 하나의 미니 에세이 정도의 분량으로, 생각보다 길게 작성했어야 했고, 짧은 답변은 약 3문장 정도 쓰는 형식이었음. 객관식은 서술형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낮았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내주셨던 예습, 복습 문제에 비해서도 훨씬 난이도가 낮았음. 시험이 40점 이하면 그냥 fail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최대한 많은 연습 문제를 올려주시려고 하는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실제로 모의고사도 약 3회 정도 진행함. 2. 외국어 습득 정도 파견 전 영어 실력 : 회화에는 특별한 문제 없었지만 듣기가 회화에 비해 너무 부족한 실력이었음 파견 후 영어 실력 : 에세이와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인 어휘량이 풍부해졌고, 쓰기 능력이 향상됨, 수업에서 종종 사용되는 전공 단어를 학습하면서 더욱 더 깊은 어휘 실력을 함양하게 됨, 특히 듣기 능력이 구체적인 단어 하나하나를 모르더라도 문맥 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함.
--	---

3. 학습 방법

어휘: 매주 읽어야 하는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전공 관련 어휘를 획득할 수 있었음, 또한 수업시간의 교수님 강의 내용을 녹음하며 그 녹음본을 들으면서 복습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단어들은 따로 메모에 적어서 외웠음.

듣기: 1달 반 정도 지났을 때에도 귀가 트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아예 한국어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않고, 무조건 영어로 된 매체만 접하려고 했음, 교수님들 강의 녹음본을 그냥 틀어놓고 복습을 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도움이 되었음.

쓰기: 쓰기 부분은 따로 노력하지 않았으나, 워낙 에세이 과제가 많고, 또한 그 과제들이 하나하나 모두 중요했기 때문에 한 에세이 안에서 다양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글을 지루하게 하지 않게 하는 과정에서 쓰기 능력이 많이 향상함.

읽기: 매주 읽기 리스트 때문에 논문이나 책을 읽어야 해서 이 과정에서도 많이 읽기 능력이 향상하기도 했지만, 에세이 작성이나 발표 준비 때문에 논문이나 책을 많이 찾아보고 읽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았음.

회화: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과 지내려고 노력했으며, 그냥 일상 얘기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심도 있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함, 또한 교수님들과도 여러번 미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회화 능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음. 수업은 토론식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이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웬만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영국에서 살 수 있었으며,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국시에 따로 중요하게 필요한 물품은 없었음. 하지만, 영국 ETA 비자 관련 문서, 여권 사본, 여행자 보험과 같은 중요한 문서들을 따로 2~3장씩 프린터를 해가서 항상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녔음.

현지 물가 수준은 한국의 딱 2배라고 생각하면 되고, 외식 물가는 매우 비싸지만 장을 따로 봐서 음식을 해먹으면 한국과 가격이 비슷했음.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의료: 학교 근처 가장 큰 마트인 ASDA에서 증상을 말하면 약을 주는데, 그 약이 꽤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약을 먹었음

은행: 한국 카드사의 여행용 카드만 챙겨갔고, 따로 영국 계좌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음

교통: 기숙사와 학교 강의실이 가까웠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에는 도보로 이동했고, 버밍엄이 울버햄튼과 가장 가까운 큰 도시였는데, 버밍엄으로 가기 위해서는 트램 또는 기차로 갈 수 있었음. 하지만, 트램은 시간도 기차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가격도 기차보다 비쌌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도 적게 걸리고 가격도 싼 기차를 많이 이용했었음.

통신: 한국에서 영국의 Three 유심을 구매해서 영국을 갔고, 영국 거주 중에도 계속 그 유심을

top-up하여 사용했었음.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한달에 1번 여행, 축구 경기 관람

2024학년도에 이미 런던에서 1달동안 생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교환학생에서는 여행 보다는 서포트 하는 팀의 축구 경기 관람과 영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뒀서 상대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음, 또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슬로베니아 외국인 친구의 집에 방문하고 그 친구와 함께 동유럽을 여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프로그램 참여 중에는 여행을 가지 않았음.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프로그램 비용: 약 1500만원

항공료: 약 200만원

보험료: 약 20만원

숙박비용: (프로그램비용에 포함되어 있었음)

식비: 약 80만원

개인 경비: 약 70만원

통신비: 약 2만원

- 매달 약 200만원 정도 소비했었음. 따로 여행비나 통신료 비를 나누지 않았음.

I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영국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고, 영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었음. 영국에서의 첫 달은 다른 학생들이 여행 다니고 영국 내 다른 도시로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행을 더 많이 다녀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일종의 초조함을 느꼈지만, 애당초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여행이 프로그램 참가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2번째 달부터는 원래 프로그램의 목적인 영어 능력 향상과 축구 경기에만 집중하였음. 결국 한국으로 귀국할때는 원하는 실력의 영어 능력에 도달하였고, 축구 경기도 만족할 정도로 직관하였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다닌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음. 또한 프로그램 이후 바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친구와 함께 동유럽을 여행해서 아일랜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7개국을 여행했기 때문에 딱히 후회가 더 생기지 않았음.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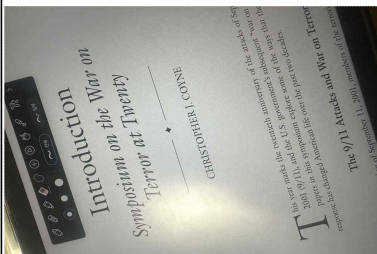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취직 준비에 열중할 것이며, 오픽 갱신과 토익 점수도 갱신할 예정, 또한 영국에서 중국인 친구를 사귀면서 중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깨달았기 때문에 미뤄왔던 HSK 5급 취득에도 열중할 것임. 정말 소중한 얻은 듣기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쇠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국 동영상이나 매체보다는 영어 관련 매체에만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스스로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저이었기 때문에 중국어와 영어 실력을 살릴 수 있으며 더불어 복수전공중인 아랍어 전공에서의 중동 정치나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공기업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게 됨.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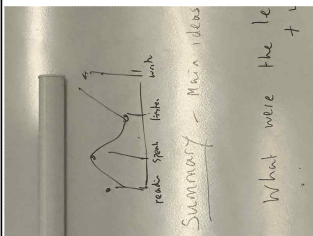
본인이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에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도 남들처럼 많이 다니고 공부도 영국 학생들처럼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건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여행이면

여행, 공부면 공부, 이렇게 자신의 프로그램 목적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영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행만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영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아예 한국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을거야 라고 다짐해야지만 영어 실력이 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해서 기숙사에서 따로 듣는 습관이 생각보다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국은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한 명 한 명 모두가 악센트가 다릅니다. 하지만 교수님이나 영국 현지인들은 그렇게 다른 악센트를 거의 대부분 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 영어가 영국인들에게 잘 들리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외국인이라고 절대 성적을 너그럽게 주거나 후하게 주지 않습니다. 정말 영국인들과 똑같은 그저 한 명의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기준 또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수업을 잘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영어 실력 향상이 목적이시라면 한국인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사이의 친밀함은 영국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한국인들과만 지내면 영어가 전혀 늘지 않습니다. 영국 대학교에서는 이메일을 정말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메일이 많으니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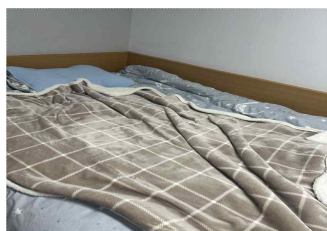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reading list 예시



강의 사진



기숙사 사진